

## 국민의 안전한 해양 활동을 위해 협력 논하다

- 기상청·국립해양조사원, ‘해양-기상 커플링 연찬회’ 개최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이철조)은 양 기관의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부산에서 ‘제7회 해양-기상 커플링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상청과 국립해양조사원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간 협력하여 실시해 왔던 해수욕장 이안류 서비스의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이안류 감시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 안전관리 담당자와의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기(大氣)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대기와 해수(海水) 대순환이 발생하듯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양 기관의 협력은 중요하며, 이러한 협력은 대 국민 서비스 측면에도 동반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 기관이 운영하는 관측 장비의 공동 활용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한 해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션 기상청 기후과학국장은 “이번 행사가 양 기관의 서비스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회로 작용하길 바랍니다.”라며 “지구 시스템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기관 협력은 해양기상정보의 품질 향상과 함께 국민의 해양 안전 확보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전했다.

이철조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해양과 기상을 관장하는 양 기관의 상호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며, “해양 재난, 여가, 산업 등 국민의 안전한 해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호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기후과학국 해양기상과	책임자	과 장	박승균 (042-481-7410)
		담당자	사무관	김종광 (042-481-7406)
<공동>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	책임자	과 장	노정식 (051-400-4106)
		담당자	사무관	한정식 (051-400-4380)

